

주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가부장제의 유형과 특징

세치야마 가쿠 지음, 김경옥 옮김, 『동아시아의 가부장제: 젠더의 비교사회학』
(소명출판, 2024)을 읽고

지은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교수

I. 이 책이 반가운 두 가지 이유

현대 일본의 가족관계와 젠더질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반가운 책이 번역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근대가족과 주부 논의에 관심이 있는 국내 연구자에게 주저없이 추천할 만한 번역서가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반갑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일본의 근대가족론과 주부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번역서도 몇 권인가 출간되었다. 아마다 마사히로의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2010), 오치아이 에미코의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2012), 우에노 지즈코의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2009), 그리고 센다 유키의 『일본형 근대가족』(2016)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책들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대가족의 종언이나 종말을 선언하고 이에 대해 현상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을 통해 일본사회의 변화를 가늠하려는 독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주장을 도출한 분석틀 자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센다 유키의 『일본형 근대가족』의 경우 서구에서 이루어진 근대가족연구를 바탕으로, 일본형 근대가족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이에(家)와 근대가족의 연속성과 단절을 둘러싼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사회와 가족의 현실에 관심을 두고 일본 근대가족 논의에 접근한 연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 그에 비해 세치야마 가쿠

의 『동아시아의 가부장제: 젠더의 비교사회학』은 젠더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동아시아의 가부장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명료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일본의 비교 대상으로 한국, 대만, 북한, 중국 4개국을 민족과 체제의 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 장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출간물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있는 저작이다.

다음으로 이 책의 출간이 반가웠던 것은 이 책이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발전해 온 페미니즘 연구의 궤적과 치열함을 담고 있으며, 젠더 관점의 동아시아 비교연구의 한 획을 긋는 저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사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여성학, 페미니즘, 젠더 연구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간략히 살펴보자. 전후 일본의 페미니즘은 1969년 우먼리브(women's lib; 여성해방) 활동을 기점으로 새출발하였다. 1970년대부터 우먼리브 참여자들에 의해 부인(婦人)이 아닌 온나(女)의 사상으로 자리매김한 연구활동이 전통적인 학계 바깥에서 축적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말에는 학문으로서의 여성학과 페미니즘 연구도 학계에 도입되었다. 일본에서 여성학 연구의 원년으로 삼는 것이 1978년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여성학회회의였다. 회의 개최 후 역사학, 사회학, 법학 등을 중심으로 여성학회 결성과 여성학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1950-60년대 벌어졌던 주부 논쟁에 대한 정리와 재평가 작업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이 유통되었다. 특히 1987년 아그네스 논쟁¹을 기점으로 페미니즘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바라 유미코, 우에노 지즈코 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서의 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구자의 저변도 확대되었다. 같은 시기 오치아이 에미코나 야마다 마사히로가 전개한 근대가족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부상하였고, 페미니즘의 성별분업 비판과 근대가족론의 주부 소멸 주장이 상승효과를 일으키면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지형을 뒤흔들었다.

¹ 1987년 홍콩계 가수인 아그네스 첸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다가 비난을 받았던 사건에서 아그네스를 옹호하는 측과 반대파가 벌인 일련의 지상 논쟁을 가리킨다. 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우에노 지즈코는 페미니스트로 대중적 명성을 얻었다.

이즈음 ‘젠더’라는 말도 일본에 도입되었다. 젠더는 1984년 이반 일리치의 『젠더』 번역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지만, 일본사회에 젠더라는 말이 널리 유포된 것은 유엔이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한 세계여성회의가 기점이었다. 이 회의에서 젠더 주류화가 제창되었고 최종목표로서 젠더 평등이 제시되었는데, 당시 일본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각 지자체가 참가자를 모집했고 일본에서만 약 5천 명이 회의에 참가했었다. 이는 단일국가로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일본 참가자의 다수는 지자체의 직원이나 여성들이었고, 이 회의가 끝난 후 일본사회에 젠더라는 용어가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일본 국회도서관 잡지검색을 통해 당시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1990~95년에 젠더를 제목으로 건 논문은 연간 10~40건에 불과했지만 1996년부터는 100건을 넘었고, 1998년 이후에는 300건을 넘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에서 여성학, 페미니즘, 젠더 연구는 서로 다른 시점과 위치에서 출발해 1980년대 페미니즘의 부흥기를 거치면서 학계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 세 갈래는 병존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여성학 → 페미니즘 연구 → 젠더 연구’의 흐름으로 발전과정을 거쳤다. 세치야마 가쿠는 1980년대 후반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에바라 유미코에게 페미니즘을 배우기 시작해 페미니즘 연구 부흥기의 한복판에서 10년을 보내며 성장했다. 1996년 박사논문으로 ‘가부장제의 비교사회학: 동아시아를 중심으로’를 제출했고, 이를 가필, 수정하여 같은 해 『동아시아의 가부장제: 젠더의 비교사회학』을 출간했다. 이러한 자신의 연구 이력을 세치야마는 한국어판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페미니즘이) 개척해 준 길을 상당한 속도로 뛰어올 수 있었다는 실감이 나에게 있다. 일본에서 나는 아마 젠더론을 처음부터 전공으로 공부한 첫 세대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전공으로 공부한, 아마도 첫 세대의 남자일 것이다”(343쪽). 그런 까닭에 이 책에는 일본의 페미니즘 부흥기와 젠더 연구 발전기를 관통해 온 연구자의 패기와 활력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우에노 지즈코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1990)에서 전개한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논의를 비교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일본사회 분석에 “충분히 쓸모있는 가부장제 개념”(37쪽)으로 만들겠다고 연구 목적을 밝힌 부분이 대표적이다.

동아시아 비교연구를 모색하거나 가족, 젠더,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짜임새 있는 일본사회론을 찾는 독자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책이다. 또 비교를 바탕으로 웅장한 학위논문을 쓰려고 결심한 인문 사회과학 대학원생이라면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로 추천한다.

II. 책의 구성과 비교의 틀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이 책은 서장과 총 10장으로 구성된 본문 3부와 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장에서는 이 연구가 “젠더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몇 개의 사회를 비교하고, 그 비교의 연장선에서 일본 사회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는 젠더의 비교사회학”(8쪽)임을 표방한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제1부가 기초 개념으로 가부장제를 재정의하고 체제와 민족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비교 도식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면, 제2부에서는 1부에서 전개했던 개념과 도식을 활용해서, 일본에서 주부 탄생의 과정과 가부장제와의 연관성을 다룬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일본사회의 비교 레퍼런스로서 동아시아 4개국(한국, 대만, 북한, 중국)에서의 주부와 가부장제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규명한다. 마지막 보론은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을 출간 시점에 맞춰 가필하고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목차를 훑어가며 책의 구성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선뜻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의 준거 개념과 비교 대상에 주목해 연구의 기본 틀을 분석해 보자. 비교를 위해 저자가 가장 먼저 한 작업은 가부장제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페미니즘이 도입되기 이전에 일본의 사회과학에서 가부장제 개념은 베버의 가부장제(patriarchalism)에 가까운 가족 권력의 형태론으로 논의되어 왔고, 이것은 남성 지배를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용법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베버의 정의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에서 고안된 후 19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발전시켜온 가부장제(patriarchy) 정의를 이어받겠다고 하고, 가부장제를 “성과 세대에 근거하여 권력이 불균등하게, 그리고 역할이 고정적으로 배분되는 규범과 관계의 총체”(48쪽)로 재정의한다. 이렇게 재정의된 분석 개념에 역사적 공간적 한정을 둔 ‘○○형’이나 **적이라는 형용사를

없이 개별사회에서 보이는 특징을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형 근대적 가부장제’와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가부장제를 비교한다고 해도 규범 자체를 비교 검증하기는 어렵다. 어떤 관찰 가능한 대상을 가져와 그것을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51쪽)고 하면서 가부장제 비교를 위한 공통된 관찰 지점으로 기혼여성의 위치에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위치 변경에 따른 주부의 탄생과 소멸에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다. 근대주부의 원형은 기혼여성이 생산영역에서 철수하여 가정이라는 재생산영역에 배치됨으로써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주부화는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은 기혼여성을 대규모로 생산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개의 국가에서 근대주부는 도시중산층의 성장과 노동계급의 소득증대를 기반으로 출현했다. 이렇게 등장한 근대주부는 가전제품의 발달과 가족의 규모 축소에 따른 가사부담 경감, 경제적 요인, 그리고 주부 당사자의 자기실현 욕구 등에 힘입어 현대주부로 이행했다. 이후 현대주부는 생산영역에 진출한 겸업주부나 주부노동자를 거쳐 점진적으로 주부 소멸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저자는 위와 같은 도식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각 사회에서 주부가 어떤 프로세스로 탄생하는가 혹은 탄생하지 않는가에 주목해서 가부장제의 유형을 특징짓는다. 크게는 자본주의형과 사회주의형으로 나눈다. 자본주의형 발전 패턴을 보이는 사회의 경우 산업화된 일부 국가에서만 주부의 소멸이 보이는 데 비해, 사회주의형의 경우 국가가 여성의 노동력화를 진흥해서 주부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주부 소멸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주부 탄생 이전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탈사회주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부화가 촉진되는 백래시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는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노동력 활용도도 높지만, 전통적인 성에 기반한 불평등한 권력 배분과 재생산 역할을 여성에게 맡기려는 규범도 존속하는 ‘사회주의형 가부장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듯 저자는 몇 가지 범형을 설정한 후 기혼여성의 노동력화 양상에 대한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의 가부장제를 비교하는 틀을 만들어냈다.

에바라 유미코는 이 기본틀이 이 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고 논평했다. 가부장제의 5개국 비교라는 거창한 시도가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혼여성의 노동력화’로 초점을 좁히고 문제의식을 명료화한 틀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력화를 비교한다는 세치야마의 기본틀이 시야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 때문에 동아시아 각 사회에 대한 서술도 평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²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에바라와 세치야마의 가부장제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닐까 싶다. 세치야마는 왜 일본의 가부장제가 현재와 같은 작동방식을 보이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제기하면서 전체에 걸쳐서 그 질문에 대한 보조선을 구성하며 입체적인 이미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두 가지 방향으로 비교를 수행하며 분석의 시야를 확장해 가는 방식을 택하는데, 한 방향은 일본을 같은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 대만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방향은 동아시아 내부 간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비교연구는 비교대상이 균질적이지 않아 단편적 유형 나열에 그치기 쉬운데 이 연구는 분석틀을 활용해 의미있는 발견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또 유엔이나 OECD 통계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사회가 생산한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의 기본틀을 끝까지 견지한 일관성도 돋보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관성은 한 사람의 연구자가 5개국 비교 연구를 자신이 수집한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확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III. 동아시아 가부장제의 유형과 특징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연구를 전개했는지 내용을 살펴보자. 다음은 저자가 동아시아 4개 국가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도식이다.

세로축은 사회체제의 축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뉜다. 동구권 사회주

² 江原由美子(1997), 『国立婦人教育会館研究紀要』 1: 12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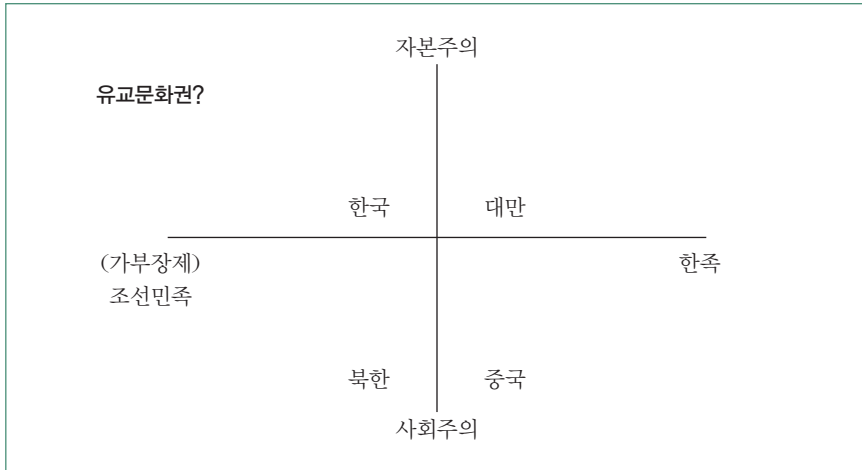


그림 1 산업주의 패턴(111쪽)

의가 붕괴한 이후, 대표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역내에 두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특색이 되었다. 저자는 체제와 민족이 교차하는, 세계에서도 드문 지역인 동아시아 내부의 비교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비교연구를 위한 최적의 '실험실'이라고 표현했다. 민족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대만과 중국으로 묶이지만, 각각 자본주의형과 사회주의형 가부장제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각각 해당 가부장제의 고유한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의 가로축은 가부장제와 민족의 축으로 조선민족과 한족으로 나뉜다. 한족 중에서도 특히 중국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는데, 유교문화가 생활에 침투한 정도가 강한 순으로 나열하면 '조선 > 중국북방 > 중국남방' 순이 된다. 이 순서대로 남자는 바깥, 여자는 집안이라는 성별분업 혹은 남녀의 영역분리가 강하게 나타난다. 북방에서는 가축을 사용한 노동이 많았고, 농업이 주로 남성의 일이었던 것에 비해, 남방에서는 쌀농사를 주로 하고 여성이 농작업에 종사했던 것이 북방에 비해 남방이 성별분업이 엄격하지 않았던 배경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중국남방형은 대만, 홍콩에서 싱가포르의 중국인사회에까지 확대된다. 저자는 남방형을 중국 전체의 중심에 두고, 여성의 취로에 비교적 허용적인 중국(특히 남방)형의 가부장제를 비교적 억제한 한반도형의 가부장제와 대비한다. 한반도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이어져 온 양반화 과정을 거쳐,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유교가 침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별분업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중국에서는 남방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주의화 이후 강력한 유교 비판에 따라 유교의 영향력이 꺾였다는 것이다.

세로축이 정책적으로 여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는지 여부를 보여준다면 가로축은 기혼여성의 노동력화에 유교가 변수로서 강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그림 1의 왼쪽 상단에 저자가 유교문화권이라 쓰고 물음표를 붙인 것은 ‘유교문화권에서는 모두 여성의 지위가 낮다’거나 ‘여성이 옥외노동을 꺼려한다’는 등을 상식으로 유통하는 현실에 문제제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동아시아는 흔히 유교문화권이라고 일괄적으로 간주되지만, 민족과 사회체제를 축으로 한 위의 네 가지 유형을 보면 다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력화라는 관점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각 사회의 산업화와 가부장제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규범의 개입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부장제 분석개념의 쓸모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강조된다.

기혼여성의 노동력화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가부장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은 유교적 규범이 매우 강하게 내면화되어, 여성의 고학력화가 주부층의 기반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는 상황이다. 고학력 여성의 주부화가 일정한 계급적 지위를 띤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만은 여성의 옥외노동을 그다지 기피하지 않는 중국 남방의 가족 규범을 따르고 있어서, 한국과 달리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형 가부장제이면서도 어머니 역할 규범이 강조되어 직장가정의 이중부담이 큰 사회다. 또 중국은 북한만큼 모성 규범이 강하지는 않지만, 시장경제화에 따라 주부가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에서는 탈사회주의화가 주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경제개방이 시작되었던 1980년대 중반의 중국에서 있었던 ‘부녀회가(婦女回家: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라)’ 논쟁이 근거로 제시된다.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주부의 탄생’을 거치지 않고 여성의 노동력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과정을 거쳤지만, 북한에서는 유교와 사회주의 체제가 결부되어 남녀유별이 강조되고, 중국에서는 노동 영역

에서의 남녀차이가 부정된다는 점이 차이로 부각된다. 기혼여성의 노동력화라는 측면에서 비교하면 중국-대만의 유사성보다 한반도 두 나라의 유사성이 사회체제의 차이를 넘어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체제를 같이하는 것보다 민족을 같이하는 경우에 유사성이 더 높은 것이다. 중국-대만은 공통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력화율이 높고, 한국-북한은 낮다. 그리고 일본은 이 두 유형의 중간에 속한다. 저자에 따르면 같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침투 정도는 민족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한반도에서 유교는 침투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회와 비교해도 뿌리가 깊다. 중국에서 유교는 한반도처럼 전사회적으로 또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일은 없었고 특히 중국 남방에서는 권력 배분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비교적 평등한 경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이렇듯 동아시아 4개 사회에서 가부장제는 사회체제를 넘어선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젠더 문제를 유교문화권으로 일괄해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 한국, 대만을 비교하면 주부소멸과 가부장제 간의 특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유교의 침투가 폭넓고,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젠더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주부가 소멸로 향하기 어려운 사회다. 이에 비해 대만은 기층사회의 노동관행과 가족규범이 주부를 정착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주부의 소멸로 향하기 쉬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일본 가부장제의 특징은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데 ‘3세까지는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3세 신화’가 중화문화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친다. 대만에서는 아기가 있어도 대졸 여성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본보다 보육시설의 정비가 훨씬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경력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머니 역할 규범이 일본에 비하면 대만이 희박한 것이다. 이것이 대만형 가부장제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한국형 가부장제의 큰 특징은 유교를 배경으로 하여 성별에 근거한 강한 역할 의식을 심어 주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일본처럼 어머니 역할에 특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은 여성으로서 구별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일본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한, 적어도 노동시장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208쪽)는 것이다.

IV. 출간이 일으킨 반향과 후속연구

『동아시아의 가부장제: 젠더의 비교사회학』이 출간되었을 때 학계의 반응은 상당했다. 일본의 가족사회학에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개념을 도입하고 정착시킨 기념비적인 연구로 자리매김하거나³ 일본의 가족과 젠더 문제를 동아시아적 맥락에 위치시킨 선구적인 연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⁴ 또 이 연구의 후속을 표방하는 대규모 공동연구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 공동연구의 결과는 2007년 『아시아 가족과 젠더』(落合恵美子·山根真理·宮坂靖子 編)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오치아이 에미코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세치야마의 후속연구임을 공언했다. 또 서장에서는 세치야마의 『동아시아의 가부장제: 젠더의 비교사회학』이 체제와 민족이라는 변수를 넣어 아시아 근대가족의 다양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아시아 근대가족론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선행연구 항목에 세치야마의 연구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 후속 연구는 대상 지역에 일본, 한국, 중국, 대만뿐 아니라 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시켰고, 현지 연구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참가하여 3년여 동안 가사 혹은 아동과 고령자에 대한 돌봄 전반을 현지조사하였다. 이들은 세치야마가 『동아시아의 가부장제: 젠더의 비교사회학』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재생산비용분담 시스템의 유형화를 공동연구의 실마리로 삼았다.

표 1에서 보듯 세치야마는 기존의 복지체제론을 확대하고 수정했다. 유럽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체제론에서는 복지국가형, 자유시장형, 전업주부형만이 등장하는데, 그는 아시아를 필드로 한다면, 사회주의권을 의미하는 국가관리형이나, 아시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친족네트워크형, 가사사용인

³ 山根真理(1998), 「家族社会学におけるジェンダー研究の展開: 1970年代以降のレビュー」, 『家族社会学研究』 10: 5-29.

⁴ 平井晶子(2018), 「特集 日本研究の道しるべ: 必読の一〇〇冊 ジェンダー」, 『日本研究』 57: 119-127.

표 1 노동력 재생산 비용부담의 패턴(291쪽)

	가족		시장	국가
	핵가족	친족가족		
개별화 ↓ 사회화 ↓	전업주부형		가사사용인형	
		친족네트워크형		
			자유시장형	
			복지국가형	
				사회주의형

* 가로축은 담당자, 세로축은 개개의 가족을 떠나서 사회화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형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후속 연구는 이 확대된 유형론을 분석의 실마리로 삼아 연구를 전개했다.

V. 한국사회를 위한 동아시아 비교연구의 제언

책 마지막의 보론은 내용상 후속연구의 출간물인 『아시아 가족과 젠더』와도 이어지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저출생고령사회의 고령자 노동에 대한 비교 연구: 외국인·여성·고령자의 노동력과 차이에 주목하여”라는 제목으로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을 고쳐 실었다. 이 보론에서 세치야마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으며, 대표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다. 현재는 대만과 한국에서, 향후에는 중국에서도 벌어질지 모르는, 사회가 재생산 의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비정상적’인 저출산 현상의 배경으로 그는 동아시아의 치열한 진학 경쟁과 높은 자녀 양육비에 주목했다.

그런데 일찍이 그가 자녀양육에서 유교적 규범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고 지목한 대만과 뺏속까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 한국이 동일하게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고령화에 대한 대만, 한국,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일본과 비교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 아마 최근의 일본의 출산율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중심에 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지점이다.

끝으로 이 책의 성과를 참고하여 한국사회를 위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두 가지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저자가 한국 사회 분석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한 ‘유교의 영향’이라는 담론을 해체하여 ‘교통정리’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비혼화나 친밀성의 변동이라는 비교의 축을 추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투고일: 2025년 3월 26일 |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2일

참고문헌

- 센다 유키. 2016. 『일본형 근대가족』. 김복순 옮김. 논형.
- 야마다 마사히로. 2010.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가족의 재구조화』. 장화경 옮김. 그린비.
- 오치아이 에미코. 2012. 『근대가족, 길모퉁이를 돌아서다』. 전미경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 우에노 지즈코. 1990.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편집부 옮김. 풀빛.
- _____. 2009. 『근대가족의 성립과 종언』. 이미지문화연구소 옮김. 당대.
- イリイチ. 1984. 『ジェンダー — 女と男の世界』. 玉野井芳郎 訳. 岩波書店.
- 落合恵美子·山根真理·宮坂靖子 編. 2007. 『アジアの家族とジェンダー』. 勁草書房.
- 江原由美子. 1997. 『国立婦人教育会館研究紀要』 1, 126-127
- 瀬地山角. 1996. 『東アジアの家父長制: ジェンダーの比較社会学』. 勁草書房.
- _____. 2021. 『東アジアの少子高齢社会における高齢者労働の比較研究: 外国人・女性・高齢者の労働力化の違いに着目しながら』 『比較家族史研究』 35.
- 平井晶子. 2018. 『特集 日本研究の道しるべ: 必読の一〇〇冊 ジェンダー』 『日本研究』 57, 119-127.
- 山根真理. 1998. 『家族社会学におけるジェンダー研究の展開: 1970年代以降のレビュー』 『家族社会学研究』 10, 5-29.